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김성열



지난 26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초·중등교육법과 통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국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일부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를 전후하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일제교사'로 매도하고 평가의 참여 여부가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평가를 거부하고 일부 단체에서 마련한 체험학습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수는 전수평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반대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약해지고 있지만,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시험 거부라는 물리적 행동보다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갖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과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학교행정가, 교사들로 하여금 시험 준비과정의 왜곡 가능성과 결과 활용의

확대되었다. 개별 학부모들이 알고자 하는 그들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을 전국적 수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공하고, 개별 학교가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단위학교로 하여금 책무 이행에 보다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는 것을 평가의 목적에 추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완성하게 하는 국가의 교육적 책무 갖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과 토론으로 이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학교행정가, 교사들로 하여금 시험 준비과정의 왜곡 가능성과 결과 활용의

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만약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평가의 한 지표로 평가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학교간 서열화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학교에서 평가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력과 같은 기본 역량을 길러주기보다는 시험 준비를 위한 정답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실시하는 보정교육의 왜곡 가능성을 경고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면서 학교와 교사들은 보정교육이 시험문제 정답 중심의 단순 암기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 성격을 고려하면서 이해와 탐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가는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담스러움이 사라질 수 있다. 성취도 평가 결과는 분명,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는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고, 교사와 학교에게는 수업을 개선하도록 하며, 국가에게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학업성취도 평가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교육학·경남대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학업성취도 평가 오해와 진실

적절성에 대해 긴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평가 대상 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평가의 목적을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파악하거나, 교육과정 개선자료로 활용한다거나, 교수·학습방법 및 장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는 것에 한정한다며 표집평가를 실시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전에 실시했던 표집평가와 달리 그 목적이

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전수평가 학교간 서열화를 촉진한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전수평가가 학교 간·학생 간에 서열을 매기는 것을 본래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에게 교과별로 우수 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미달학력 등 절대적 수준의 4단계로 통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는 단위학교로 하여금 절대적 성취 수준에 도달하도록 경쟁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상대적 서열을 놓고 경쟁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것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성취 수준을 알려주고 단위학교로 하여금 책무

않는다. 일단 이병에 걸리면 고사된 대퇴골 두가 깨져서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을 못 쓰게 된다.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결코 난치병이 아니다. 제대로 치료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병이 초기이거나 고사된 부위가 크지 않으면 대퇴골두에 다시 혈액을 공급해 빠의 재생을 돋는 전공술, 감압술, 뼈 이식술 등의 치료법이 적용된다. 진행이 되고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손상된 고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고관절 치환술, 고관절 표면 치환술 등이 시행된다.

최근 가수 김경호씨가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증으로 투병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경우 음주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한 경우 암벽등반, 철인 3종경기도 거뜬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치율이 높은 질환 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예방방법은 없으나 위험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과음, 스테로이드 사용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

〈광주21세기병원 원장〉

## 양반다리로 앓기 힘들다면...

있는데, 이를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라고 한다. 고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고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되고 이어서 고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나타난다.

20~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보행 시 사타구니 및 하贝지 전방부위로의 통증으로 절뚝거리게 된 경우 가장 먼저 이 질환을 의심해야 봐야한다. 통증은 대개 갑자기 시작하고 땀을 더릴 때 심해져서 절뚝거리게 된다. 앓거나 누울 때는 훨씬 편하다. 통증과 대퇴골두의 합물 변형으로 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줄어들어 바닥에 책상다리로 앓기가 힘들며 학물이 심하면 다리길이가 짧아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가 고관절 질환 중 가장 흔하며 전체 고관절 질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4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자들은 흔히 '뼈가 썩는 병'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대퇴골두와 관골구까지 침범하는 고사증이며 부폐가 되거나 주위로 퍼져나가는 않는다.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발생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혀지지 못한 상태로 다만 여러 가지 위험인자가 알려져 있다.

원인적 위험인자는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질환, 루프스 같은 결체 조직병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성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다.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퇴경부골질이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

이 두 가지 외상에서는 대퇴골두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손상되거나 끊어지거나

단위로 고관절에 혈액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퇴골두 무혈성 고사는 원인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거나 고관절 탈구에 자주 합병된다.